

경기도, '평화누리길' 명칭 독점권 확보 초읽기

이달내 업무표장·서비스표 등록

경기도의 '평화누리길' 명칭 독점권 확보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도북부청은 9일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 트레킹 코스인 '평화누리길'의 업무표장과 서비스표 등록을 이달 중으로 마친다"고 밝혔다. 업무표장이란 비영리 업무를 하는 기관이 그 업무를 나타내려고 사용하는 명칭이나 표식을 말한다. 도는 지

난해 7월 관련 등록을 위한 상표출원을 했다. 등록이 완료되면 앞으로 10년간 평화누리길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보호된다. 이 기간동안 경기도가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되며 10년마다 갱신해 영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평화누리길이란 DMZ 접경지역 4개 시·군인 김포, 고양, 파주, 연천을 잇는 길이 191km의 트레킹 코스이다. 다양한 역사문화 유적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12개 구간으로 나누어 감상할 수 있다. 김창학기자

11.4 X 6.6 cm

평화누리길 업무표장·서비스표 등록 이달 중 완료

경기도는 평화누리길의 업무표장과 서비스표 등록을 이달 중 마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7월 평화누리길 업무표장 및 서비스표 등록을 위한 상표출원을 실시했다. 등록이 완료되면 향후 10년간 평화누리길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와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되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영속적인 사용이 가능해진다.

업무표장은 상표법에 따라 비영리업자가 그 업무를 구체적으로 나

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상표의 일종이다.

이번 등록 조치는 평화누리길의 위상 정립은 물론 개인이나 영리 목적으로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평화누리길은 DMZ 접경지역 4개 시·군인 김포, 고양, 파주, 연천을 잇는 총 연장 191km, 12개 구간으로 구성된 트레킹 코스다.

의정부 =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10.1 X 7.1 cm

“평화누리길 명칭 무단 사용 안돼요”... 道, 업무표장·서비스표 등록

비스표 등록을 진행하게 됐다”고 추진경위를 밝혔다.

독점적 권리 10년마다 갱신 가능

경기도는 이달중 평화누리길의 업무표장 및 서비스표 등록을 마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7월 평화누리길 업무표장

및 서비스표(제35호류, 제39류, 제41류, 제43류) 등록을 위한 상표출원을 실시했다.

등록이 완료되면 향후 10년간 평화누리길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는 물론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되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영속적인 사용이 가능해진다.

도 관계자는 “최근 DMZ와 관련해 일부 유관기관에서 행사 및 홍보물을 활용 시 평화누리길 명칭을 무단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왔다”며 “평화누리길의 안정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 업무표장 및 서

평화누리길은 DMZ 접경지역 4개 시군인 김포, 고양, 파주, 연천을 잇는 총연장 191km, 12개 구간으로 구성된 명품 트레킹 코스로, 다양한 역사문화 유적은 물론 수려한 자연경관을 볼 수 있어 이 길을 찾는 여행객들에게 극찬을 받아 오고 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23.8 X 4.4 cm

경인일보

2015년 06월 10일 (수)
02면 종합

道, 평화누리길 독점권

이달중 서비스표 등록

10년간 지식재산권 보호

경기도는 평화누리길의 업무표장 및 서비스표 등록을 이달 중으로 마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7월 평화누리길 업무표장 및 서비스표(제35호류, 제39류, 제41류, 제43류) 등록을 위한 상표출원을 실시했다.

등록이 완료되면 향후 10년간 평화누리길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는 물론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되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영속적인 사용이 가능해진다.

업무표장은 상표법에 따라 비영리업자가 그 업무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입체적 형상 등 상표의 일종으로, 이번 등록조치는 평화누리길의 위상정립은 물론 개인이나 영리목적으로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평화누리길은 DMZ 접경지역 4개 시군인 김포, 고양, 파주, 연천을 잇는 총연장 191km, 12개 구간으로 구성된 트레킹 코스로, 다양한 역사문화 유적은 물론 수려한 자연경관을 볼 수 있어 여행객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윤재준기자 bioc@kyeongin.com
4.9 X 17.8 cm